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기독교 신학자들도 효사상 주목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과 효사상(孝思想)

며칠 전 박물관 수장고서 오래 전에 어느 주지스님께서 퇴임하실 때 갖고 가셨다가 반환한 불서 전적류를 살펴보다가, 고본(古本) 접장본(帖裝本, 병풍처럼 펼쳐 볼 수 있게 만든 책)과 함께 겹쳐져 있는 책을 한 권 발견했다.



윤경5년본 부모은중경 동화사박물관 소장본

윤경(隆慶) 5년 신미년(선조 4년) 정월에 경상도 상주(尙州) 사불산(四佛山) 대승사(大乘寺) 개간(開刊)이라는 간기가 적혀있고, 목판을 직접 판각한 스님인 각수(刻手) 의련(儀鍊), 공양주(供養主) 조환(祖還), 대화주(大化主) 희준(熙俊) 등의 이름이 나란히 쓰여 있는 책이었다.

책은 다음 아님, 경북 문경 지역 내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고서(古書)로 내제(內題)는 <불설대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인 불서와 동일본(同一本)이었다.

중국 고대의 효자 광거, 정란 등 효행 기록 기술

<부모은중경>은 육방예경(六方禮經), 목련경(目蓮經), 우란분경(盂蘭盆經) 등과 함께 불교의 효사상을 대표하는 경전이다. 물론 이 경전은 인도불교가 중국에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변용(變容)을 거듭하면서, 독특한 중국불교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당나라 초기의 위경(偽經)이다.

동황본 부모은중경에는 빠져 있지만, 당나라 지승 스님이 찬술한 위경과 불전목록인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 730년)에는 중국 고대의 효자인 광거, 정란 등의 효행공적을 적은 기록이 나온다.

1세기경 정란(訂蘭)은 어머니가 돌아 가신 후, 모친의 모습과 똑같이 생긴 나무로 만든 조각상을 만들어 두고, 살아 계셨을 때와 똑같이 조석으로, 지성으로 모셨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장숙이란 사람의 부인이 물건을 빌리러 왔는데, 정란의 아내는 평소처럼, 조각상에 가서 물건을 빌려줄지 말지를 물어보았다. 그러나 장숙 부인은 이런 행동을 보고, 못마땅했는지 조각상에 물건을 던지며 욕을 하고 가버렸고, 조각상도 바로 불쾌한 모습을 보이고, 정란이 쳐도 물건을 빌려주지 않았다. 장숙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곧장 찾아와 조각상에 욕을

하고 가버렸는데, 정란이 집에 돌아와 보니, 조각상이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상황을 파악하고 난 후, 정란이 칼을 가지고 가서, 장숙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나 거절당한 후 정란은 장숙을 죽이고, 관리들에게 끌려가는데, 조각상에 작별을 고하자 조각상이 눈물을 흘렸다. 이를 본 관리들은 정란을 풀어주고, 그 효성을 기렸다고 한다.

최근 들어 사상의 빈곤을 드러낸 기독교 신학자들은 동양의 효사상을 주목하고, 유교(儒敎)와 여타 종교의 효사상을 기독교신학에 접목시켜, 기독교의 사상적인 부흥을 꿈꾸고 있는 듯 하다. 기독교의 신(神)이 시나이산(山)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 이후 오늘 날까지도 모든 기독교인들의 기본 생활 규범이 되고 있는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主)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리라”이다. 이 계명 외에 신구약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에는 특별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실제적인 자료는 별로 없다. 그리고 이 계명은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인 그들의 신에게 효도하라는 의미로 바뀐 지 오래다.

기독교는 사라져 가야할 구시대의 유물인 것 같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미풍양속이 파괴되고, 전통문화가 말살되는 현실에 많은 불자들의 깨달음이 필요 한 시기이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心眼으로 내려 그은 일필휘지”

불광산사 성운스님 서예전시회 개최  
4월 22~30일까지 서울 불광산사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등 30여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성운 스님은 수행의 방편으로 매일 100여 장씩 일필로 붓글씨를 쓴다.

전세계 신도 수 1백만 명, 세계 각지로부터 출가한 스님 2천여 명, 그리고 지구촌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분원 200여 개 등을 갖고 있는 대만 불광산사(佛光山)는 단일 사찰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불광산사가 위치한 우리나라의 부산과 비슷한 도시 까오승(高雄)현은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황무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불광산사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산 전체가 하나의 사찰로 이뤄져 있고 내부에는 주요 전각만 20여 채가 넘을 정도로 대형 사찰이 됐다.

이러한 대형 불사를 맨손으로 일궈낸 인물이 바로 불광산사 개산종장인 성운 스님(86)이다.

성운 스님은 숭산 스님(1927~2004), 턱나쁜 스님과 함께 세계적인 고승 중 하나로,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로써 불법을 펼치며, 자선으로 사회복지를 이루고, 수행으로 인심을 정화한다’는 4가지 서원으로 산사를 세웠다.

성운 스님은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불교를 강조해왔다. 현재 성운 스님은 수행 방편의 일환으로 <화엄경> (반야심경) (금강경) 등에서 발췌한 글귀를 서예로 옮기고 있다. 특이한 점은 글씨를 한 번에 써내려 간다는 것이

다. 즉 일필휘지인 것이다. 스님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글씨를 쓸 때 중간에 멈춰버리면 필획을 분명히 볼 수 없고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필(一筆)로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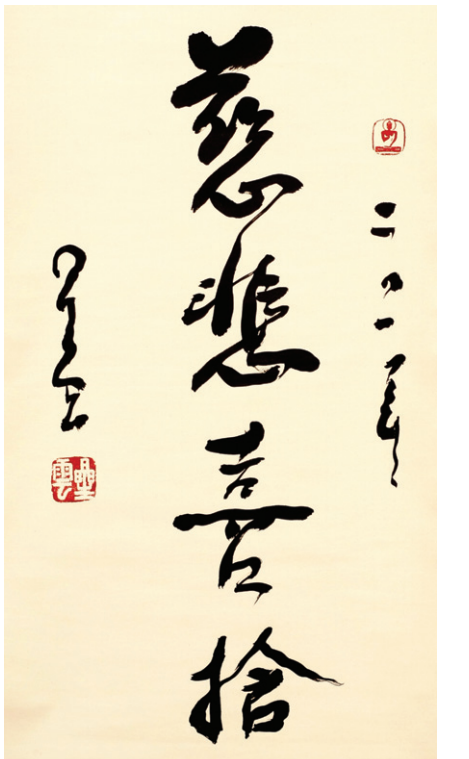
이런 방법으로 매일 100여 장씩 붓글씨를 써온 성운 스님은 2005년부터 세계 10여 국가를 순회하며 ‘불광산 성운대사 일필 서예 전시회’를 열었다. 스님의 전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미국 유럽 UN 등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으며,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자신의 원고비와 인세를 모두 기탁해 ‘성운대사 교육기금 재단’을 설립한 성운 스님은 전세계에서 서예전시회를 통해 기금

마련을 계속 하고 있다. 목표액은 한화로 350여억 원 이 돈을 건전한 대중매체 활동을 장려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좋은 말, 좋은 일, 좋은 마음’ 운동을 전개해 화목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활동을 펼치는데 쓰일 예정이다.

서울 불광산사(주지 의은)도 이런 성운 스님의 뜻을 받들어 교육기금마련의 일환으로 ‘성운 스님 전시회’를 4월 22~30일 개최한다. 장소는 서울 불광산사이다. 전시에서는 성운 스님이 매일 수행하며 써온 ‘응무소주이생기심’ ‘자비희사’ 등 서예 작품 중 3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의은 스님은 “성운 스님의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이 중생에 대한 자애심과 불법에 대한 환희심을 느끼



성운 스님은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과 미혹을 없애주는 자(慈)·비(悲)·희(喜)·사(捨)의 네 가지 무량심을 강조한다.

길 발원한다”며 “‘소아(小我)’에서 ‘대아(大我)’의 마음으로 획을 내려간 성운 스님의 중생 사랑 정신도 함께 엿보길 희망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성운 스님의 서예 전시는 부산 흥법사(5월 5~6일), 제주 약천사(6월 24일~7월 24일), 서울 구룡사(8월 1~31일)에서도 순차적으로 열린다. (02)2276-0993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禪畫에 무념무상의 경지 펼쳐”

성호 스님 선사화전, 5월 12일까지

전남 담양에서 수행하며 선화(禪畵)를 그려온 성호 스님이 고회(古稀)를 맞아 전시회를 연다.

‘붓이 흐르고 꽃피더라’를 주제로 전시회를 여는 성호 스님은 4월 28일~5월 12일 광주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30여년간 그려온 달마도를 비롯해 한산·습득 등의 중국 고승을 그린 인물화와 연꽃, 매화 등 선사화 4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성호 스님의 작품 가운데 중국 당나라 때 천태사 국청사의 공간의 제자로 전해오는 한산(寒山)과 습득(拾得)을 소재로 한 작품은 자유분방하고 광적인 기행의 무위도인을 표현하고 있다.

성호 스님은 1978년 현암 김한영 선생 문하에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우고 수행



성호 스님의 달마도

과 예술 활동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묵화를 택했다.

1983년 대구 시민회관에서 첫 번째 선묵전을 시작으로 부산과 광주 등에서 몇 차례의 전시회를 가졌던 성호 스님은 수재민 돕기 자선전시회를 열어 수익금을 성금으로 기탁하기도 했다.

1957년 목포 정혜원에서 출가한 스님은 제주 서산사와 목포 정혜원, 광주 원효사에서 주지 소임을 맡았다. 현재는 담양 휴휴당 토굴에서 수행을 하며 선화그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062)383-0107 이나는 기자

“연꽃 10가지 덕목 화판에 옮겨”

김나현 개인전 JH갤러리서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은 청렴한 자세로 자신의 향을 퍼뜨린다. 치열한 삶을 사는 우리는 연꽃에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이런 연꽃의 상징성에 주목하고 1999년부터 연꽃을 그린 김나현 작가는 4월 18~24일 관훈동 JH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김 작가는 ‘지혜-우주의 생명: 연의 생명’을 주제로 전국 연지를 돌아다니며 그린 연꽃그림 20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단편적으로 연꽃 형상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 단순한 형상이 내포한 의미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말하고자 했다.

연꽃에서 인생의 지혜를 배운다는 김나현 작가는 이제염오(離諸染汚), 불여악구



지혜(智慧)-가을 빛, 50x100cm, 장지에 채색, 석채, 백금분, 2011

(不與惡俱) 등 연꽃의 10가지 덕목을 표현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플로즈업 된 연잎이나 연꽃 형상 주변의 배경처리에 변화가 엿보인다. 반복된 점 모양이나 꽃, 잎 등이 뒤얽힌 당초(唐草)무늬를 연상시키는 전통문양들도 등장한다. 그리고 형상 속에 형상을 담은 이중 혹은 다중구성으로 연출된 장면도 있다. (02)730-4854 이나는 기자

창사 19주년 기념

마하연투어 (주)에스케이

성지순례

출발 확정 상품

- 미얀마 성지순례 : 6일, 7일  
5월30일, 6월 1일, 6월 8일,  
6월14일, 6월21일, 6월23일 **요금문의**
- \* 전일정 특급호텔, 가이드 기사 탑, 호스카 포함
- 지장도량(구화산,황산)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6월 1일, 6월 9일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6월23일 **요금문의**
- 인도 성지순례 9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여행사 남녀 가이드 견습생 모집

- ◆ 해외 파견 견습생 2명
  - ◆ 국내 연수 견습생 2명
  - ◇ 서류제출 :  
- 여권사진 부착 이력서 1통,  
- 자기소개서 1통  
- 중단불문 사할 주지스님 추천서 1통.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 호 불교성지전문여행사(주) 마하연 투어  
문의 : 02)365-7747

세계 최대 와불(열반상) 성지순례를 와불법당 미암사로 오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오.

시험합격, 사업번창, 학업성취, 자손득남, 운수대통, 무병장수

**세계최대층진신사리탑**  
(33층)  
진신사리 1과가 3과로 자연증과된 신비한 영형 33층 진신사리탑

**신비한 쌀바위(미암사)**  
(중남지방문물계 제371호 지정)  
백제 침류왕때 유씨 부인이 자손을 얻게 해달라고 공을 드려서 쌀도 나오고 자손도 얻어 소원 성취하였으므로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노화가 방지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신진대사가 원활해 집니다.

국가안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적멸보궁 **미 암 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1189 www.ssalbawi.com(또는, 한글로 미암)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